

## “새만금을 첨단산업의 글로벌 거점으로” 외국인 투자기업에 새만금 매력 홍보

- 새만금청, 한국외국기업협회와 CEO 포럼 연계 공동 IR 행사 개최 -

- 새만금개발청(청장 문성요)은 한국외국기업협회(이하 FORCA, 회장 문고영)와 6월 10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‘2026 FORCA 6월 CEO 포럼 & Saemangeum Foreign Investment IR’를 개최했다고 밝혔다.
  - 이번 행사는 지난 2월 현대자동차그룹과 약 9조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한 이후, 새만금의 변화된 투자환경과 미래 성장 가능성을 한국 주재 외국인 투자기업 CEO들에게 알리고, 글로벌 기업과의 실질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.
- 이날 외국인 투자기업 CEO 및 임원진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전 환담, 새만금 홍보영상, 투자 설명 발표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.
  -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이 가지고 있는 매력을 소개하며, 대규모 가용부지, 풍부한 재생에너지, 트라이포트(공항·항만·철도), 투자진흥 지구 지정으로 인한 다양한 인센티브와 현대자동차그룹과의 투자 협약을 발판 삼아 로봇, 인공지능(AI)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의 거점으로 새롭게 도약하고 있음을 강조했다.
- 이번 행사를 계기로 새만금개발청은 외국인 투자 기업과의 네트워크를 공고히 하고, 새만금에 적합한 첨단산업 분야의 잠재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투자유치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.

- 또한, 글로벌 기업들이 요구하는 투자 조건에 대한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해 제도개선 및 기반을 조성하여 실질적인 투자유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적극 힘쓸 계획이다.

□ 문성요 새만금개발청장은 “현대자동차그룹의 대규모 투자 협약 이후 새만금은 미래 첨단산업의 새로운 거점으로 주목받고 있다.”라면서, 인공지능(AI)과 로봇 등 외국인 투자기업과의 협력과 투자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 등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.”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개발전략국 투자유치과	책임자	과 장	유지원 (063-733-1330)
		담당자	사무관	정한별 (063-733-1233)

